

“차세대 교사는 행복합니다”



차세대사역본부가 2월 6일까지 차세대 교사를 모집한다.



2022년 ‘다음세대 응원단’ 차세대 교사 모집 1월 29일~2월 6일까지 ... 온라인 교사 지원서 작성

차세대사역본부에서 ‘다음세대 응원단’ 차세대 교사(이하 차세대 교사)를 모집한다. 차세대 교사는 예수의 제자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미래 교회를 세우는 가장 가치 있는 사역 중 하나이다. 그 귀한 일을 함께 할 동역자를 찾는다.

2022년 차세대 교사 모집은 1월 29일(토)

부터 2월 6일(일)까지 진행된다.

다음세대를 응원하고, 하나님 나라 일꾼을 세우는 뜻깊은 일에 관심 있는 온누리교회 공동체 소속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우측 QR 코드를 스캔해서 지원서를 작성한 다음 제출하면 된다.

김의경 성도(서빙고 유치2부)는 “차세대

교사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며 “하나님께 다음세대를 맡겨드리는 귀하고 행복한 일이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성은 집사(양재 소년1부)는 “하루가 다르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차세대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의 밝은 미래를 꿈꾼다”면서 “차세대들의 성장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응원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자”고 권면했다. <관련 기사 12면>

2022년 신입 교사들을 위한 온라인 ‘교사 사명교육’도 진행된다. 2월 19일(토)부터 3

월 12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이어진다. 4주 차에는 부서별 교육을 한다. 대상은 서빙고, 양재, 도곡 신입 교사다.

문의: 서빙고 02-3215-3521, 양재·도곡 02-570-7436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차세대 교사 신청

헌혈 버스가 온다!

생명 나눔의 날 ...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 2월 5~6일, 12~13일, 27일 교회 주차장

가족, 공동체, 성도들과 함께 헌혈하는 기쁨을 누리는 ‘생명 나눔의 날’ 행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헌혈 버스가 온누리교회 주차장을 방문해서 성도들이 편하게 헌혈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생명나눔의 날 행사는 서빙고온누리교회 2월 5일(토)과 12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2월 6일(일)과 13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회 주차장에서 진행된다. 양재온누리교회는 2월 6일(일)과 13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

지 교회 주차장, 도곡교육관은 2월 6일(일)과 13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숙명여고 주차장에서 행사가 이어진다. 수원, 부천, 인천온누리교회는 2월 27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회 주차장에서 헌혈할 수 있다.

생명 나눔의 날 행사에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해야 참가할 수 있다. 시간대별로 선착순 10명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이름, 공동체, 연락처, 주소, 헌혈 참여 캠퍼스’를 기록해야 한다. 헌혈

을 신청한 성도들은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한다.

대한민국 ‘피(血)’로 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은 4월 17일 부활절까지 계속된다. 동참을 원하는 성도들은 가까운 한마음혈액원 헌혈카페 또는 헌혈의 집을 방문하면 된다. 생명 나눔의 기적 ‘참여 인증 사진, 한 줄 소감, 이름, 연락처, 주소’를 카카오톡 채널 ‘온누리교회 생명나눔의 기적’이나 문자메시지(010-4048-3091)로 보내면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 온누리신문에 게재된다. <관련 기사 7면>

문의: 02-570-7523

/ 홍하영 기자

‘소금과 빛으로 사는 목회자’

2022년 목회사관학교 2월 14일부터 19일까지

2022 목회사관학교가 ‘소금과 빛으로 사는 목회자’를 주제로 2월 14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여주시 마임 비전빌리지에서 열린다.

2022 목회사관학교 ‘소금과 빛으로 사는 목회자’에는 온누리교회 전임교역자, 파트교역자 300여 명(비전교회, 협력교회 100여 명 온라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전임교역자(2월 14일부터 17일), 파트교역자(2월 17일부터 19일) 목회사관학교로 나누어서 진행한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2022 목회사관학교가 ‘소금과 빛으로 사는 목회자’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복음과 목회 리더십’, 유기성 목사가 ‘복음과 영성’, 방기선 목사가 ‘복음과 세상. 일터’, 이인호 목사가 ‘복음과 설교’, 이정선 사모가 ‘복음과 성령’을 주제로 강의한다.故 하용조 목사의 영상 설교도 상영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신년특집 세상의 소금과 빛 온누리

⑤ 온누리교회의 소금과 빛 '선교재단'

“쾌적한 교회, 안전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온누리선교재단'

온누리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을 표어로 내걸고 2022년을 힘차게 출발했다. 본지에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기관, 사역 등을 소개하고 있다. 그 다섯 번째 주인공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온누리선교재단'이다. 온누리선교재단은 교회의 자산 및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다. 온누리교회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다. 성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안내, 방역, 소독, 전기, 난방, 수도 등을 점검한다.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설을 보수하고, 식당과 카페도 운영한다. 온누리교회의 소금과 빛 역할을 톡톡히 감당하고 있다. 온누리선교재단 상임이사 장규환 장로를 만나 새해 계획과 다짐을 들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성도님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참 많은 은혜 가운데 새해를 시작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온누리선교재단은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치더라도 성도님들이 가장 쾌적한 환경에서 경건하고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섬기겠습니다.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고 친절하게 섬기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는 온누리선교재단을 소개해 주십시오

“온누리선교재단의 설립 목적은 온누리교회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회 시설을 유지 관리함으로써 성도님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온누리선교재단은 5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관리부, 서빙고 관리부, 서빙고 SVC부, 양재 관리부, 양지 관리부가 있습니다. 5개 조직 산하 16개팀(남한산성 묵상 의집 관리팀, 자산관리팀, 재정팀, 서빙고 총무팀, 보안관리팀, 기관팀, 전기팀, 차량관리팀, 식당팀, 양재 관리팀, 기관팀, 전기팀, 보안관리팀, 한식당팀, 양지 관리팀, 양지 기술전기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은 총 110명입니다. 서빙고, 양재, 양지온누리교회는 전기, 기관, 영선, 식당, 총무, 보안관리 등 모든 부서를 직접(직할) 관리하고 있고, 수원과 부천온누리교회는 보안 관리만 온누리선교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온누리교회는 시설관리를



지난해 가을 온누리선교재단 직원들이 '사랑의 김장나눔'을 실시했다.

용역회사를 쓰는데, 그 용역회사 관리를 온누리선교재단 직원을 파견해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건축관리부는 교회 건축 관련(교회 신축, 동봉고 근린공원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결혼예배(양재온누리교회), 문막 온누리동산 분양관리 등도 온누리선교재단이 섬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성도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예배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온누리선교재단 직원들의 보이지 않는 섬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시작될 때부터 온누리교회는 적극적이고 재빠르게 대처했다고 자부합니다. 이재훈 담임목사님의 당부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타교회의 모범이 되도록 대처했습니다. 방역 및 필요 장비들을 과감하게 구비했고, 모든 직원에게 대응 방법을 숙지시켜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교육했습니다. 또한 목회지원팀, 예배지원부서와 협력해서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역체크 시행, 소독제 비치, 시설 소독, 개인 소독 등을 완전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주의 깊게 반응하고, 지속적인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보험 가입도 철저히 해두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누리선교재단 직원들이 정말 많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팀, 기관팀, 보안관리팀 직원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들 부서는 365일 24시간 안전한 교회를 위해서 시설을 관리하고, 성도들을 정말 친절하게 안내하는 부서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기간에 성도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수고한 식당팀도 칭찬하고 싶습니다. 월요일은

휴무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을 위해 정성을 다해 식사를 준비해주셨습니다.”

온누리선교재단의 새해 계획과 중점 사역이 궁금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맞춰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예배환경을 만들고, 예배가 완전히 정상화될 때를 대비해서 시설보수 등을 선제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보수가 필요한 시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축공사(동봉고 근린공원 청소년문화센터, 남양주온누리교회 4월 착공예정, 영종온누리교회 연말 준공예정)가 많습니다. 안전하고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도록 기도해주시고.

온누리선교재단 직원들의 신앙 및 영성 함양도 도울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직원의 큐티를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온누리선교재단 모든 직원이 업무 시작 전에 30분 동안 큐티모임을 합니다. 큐티모임을 한 지 7년 정도 됐습니다. 진솔한 모임과 나눔을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또한 온누리선교재단 모든 직원이 매주 예배당 예배를 드리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누리선교재단 직원들이 온누리교회의 목회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도님들을 제대로 응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예배 참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편(fun)경영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 및 활용할 계획입니다. 온누리선교재단 직원들이 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하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온누리선교재단 직원들이 자부심과 소속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편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제안하고, 참여하는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탁구, 볼링, 뮤지컬 관람, 독서토론회, 독후감 쓰기, 칭찬콘서트, 성경필사, 텃밭 가꾸기, 김장 나눔, 미자립교회 시설보수



등의 활동에 온누리선교재단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용산가족공원에 있는 텃밭을 빌려 온누리선교재단 직원들이 배추와 무를 재배해서 불우이웃들에게 김장을 나눠준 적도 있습니다. 그때 함께 봉사한 분 중에 교회 나오지 않는 분이 계셨는데 전도의 장(場)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온누리선교재단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불우이웃을 돕는 모습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강력한 전도 도구가 되었습니다. 독후감 쓰기도 했는데 온누리선교재단 직원들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이재훈 담임목사님의 책 <위대하지 않은, 선한 그리스도인을 찾습니다>를 온누리선교재단 모든 직원이 읽고 독후감을 써서 기념책으로 엮기도 했습니다. 전기, 기관, 영선실 직원들은 쉬는 날 환경이 열악한 인천의 한 교회를 찾아가 사택 및 교회 건물을 대대적으로 보수 및 수리해줬습니다. 재능기부로 불우이웃을 도운 것입니다. '에스라 프로젝트'에도 온누리선교재단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편경영활동을 권장하는 이유는 각 부서와 사역팀이 떨어져 있어서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소속감과 일체감,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신앙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온누리선교재단은 언제나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모이도록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더욱 친절하게 안내하겠습니다. 교회의 자산을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온누리선교재단 모든 직원이 온누리교회의 목회 철학에 맞는 영적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교회를 이용하다가 불편한 점이 생기면 주저하지 마시고 온누리선교재단 직원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이들에게 부유함을 자랑하고 싶었던 아빠가 있었습니다. 일곱 살 난 아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 주려 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거대한 저택에서 나와 가난한 친구가 사는 작은 시골 농장으로 갔습니다. 작고 허름한 집에서 함께 이틀 밤을 보냈습니다. 아빠는 아들이 가난한 집을 경험하고 자신이 의도한 것을 깨달았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들아,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보았니? 너는 거기서 무엇을 배웠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정말 좋았어요. 우리 집에는 개가 한 마리뿐인데 그 집에는 네 마리나 있었어요. 우리 집 뒷마당에는 수영장이 한 개밖에 없는데 그 집 뒤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개울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는 전등만 있는데, 그 집에는 멋진 별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밤에 제각각 자기 방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는데, 그들은 모두 둘러앉아 친구처럼 재미있게 놀았어요. 아빠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들의 순수한 눈에는 세상을 거꾸로 보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전도서에는 헛되고 덧없는 세상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헛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를 고백합니다. 특히 7장은 사람들이 대부분 별생각 없이 옳고 좋다고 생각하는 상식의 평형을 깨뜨립니다. 7장에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입니다. 인생을 거꾸로 볼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을 뒤집으면서 인생의 지혜를 알려 줍니다. 인생을 거꾸로 보면서 얻는 지혜입니다.

선한 평가가 풍요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으니 말이다. 살아 있는 사람은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2절).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칫집에 있다”(4절).

세상 상식으로는 잔칫집과 초상집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당연히 잔칫집이 좋습니다. 친족이나 갈 수밖에 없는 초상집이 아니고서 전혀 모르는 두 가정의 잔칫집과 초상집이라면 당연히 잔칫집으로 마음이 쏠립니다. 잔칫

집은 분위기가 밝고 기쁘고 즐겁지만, 초상집은 우울하고 슬프고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는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그 초상집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이 말씀은 잔치의 즐거움이나 기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잔치의 기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결혼 잔치에 참석하셨고, 포도주가 부족할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잔치의 기쁨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잔칫집의 기쁨에서는 초상집에서 얻는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초상집에서 얻는 지혜 때문에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고 고백합니다. 세 가지 지혜가 나타납니다.

첫째, 이름에 대한 선한 평가가 삶의 풍요보다 낫습니다. 1절 전반부를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좋은 향수’라고 했는데 향수보다 기름이 더 정확합니다. 이름은 히브리어로 ‘쉐’이고, 기름은 히브리어로 ‘쉐멘’입니다. 이름은 출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가족들이 태어난 아기 이름을 지어 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이름을 지을 때 대부분 그 아이의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 유익한 인생, 쓰임 받는 인생이 되라고 붙여줍니다. 출생 때 부여된 이름이 죽음 앞에서도, 죽음 이후에도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명예롭게 남는 것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좋은 기름’이란 죽음과 관련 있습니다. 당시에는 시체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고 부음으로써 부패를 방지하고 정결케 했습니다. 이 세상의 부유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체에 최고급 향유를 부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당시 부의 척도였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운 삶을 상징하는 좋은 기름보다 그 이름이 아름답고 선하고 존귀하게 기억되는 삶이 더 낫습니다. 그것이 초상집에서 얻는 지혜입니다. 시신에 값비싼 향유를 부으면 뭐합니까? 관이 값싸면 뭐합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한다면, 그 이름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가 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낭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향유로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전파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향유를 다 부었습니다. 그 좋은 기름을 다 썼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것을

알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기름을 부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죽음 너머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살아 있을 때 자신의 이름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름이 초상집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잔칫집에서는 얻을 수 없는 지혜입니다.

인생의 시작보다 마지막이 낫다

둘째, 인생의 시작보다 마지막이 낫습니다. 1절 후반부를 보시면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출생이 죽음보다 낫습니다. 생명이 죽음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이 우리 생의 끝이 아니므로 진정한 지혜는 죽음 너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청교도 윌리엄 로어는 “매일 잠을 자는 침대가 자신의 무덤이라고 생각하고 상상하며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상상해 보라”고 권면했습니다.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시작보다 낫다는 것은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바로 셀 수 있도록 가르치소서. 그래야 우리가 마음에 지혜를 담게 될 것입니다”(시 90:12).

인생의 마지막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고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늘 과거를 동경하고, 젊음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늙어감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 시작보다 낫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그에게 “네가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는 날마다 메시아의 출생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왔습니다. 성전의 뜰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늘 기도하던 시몬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 성전 뜰로 나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아이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다스리시는 주여,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

이 평안히 가게 해 주십시오”(눅 2:29).

시몬은 그리스도를 보고 축복하는 소명을 마치기 전까지 죽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영혼들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기 전까지 데려가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낫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이루시는 소명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시몬이 죽음 앞에 섰을 때도 “주의 종이 평안히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날 때와 죽을 때가 정반대여야 합니다. 태어날 때 울고, 죽을 때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가야 합니다. 시몬처럼 평안하게, 기쁨으로 담대하게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죽음을 강조합니다. 죽음이 왜 왔고, 죽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었기에 이제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책망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는 죽으리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웃음보다 슬픔이 낫다

셋째, 초상집에서 배우는 지혜는 웃음보다 슬픔이 낫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슬픔 어린 열굴이 그의 마음을 바로잡기 때문이다”(3절).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은 술 밑에서 가시나 무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 또한 허무하다”(6절).

세상의 지혜는 슬픔을 피하고, 웃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웃음보다 슬픔이 낫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울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 웃음의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지혜는 세상의 밑바닥에 비극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초상집에서의 슬픔을 깊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진정한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억지웃음을 만들어서라도 행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14면에 계속〉

하나님은 초상집의 슬픔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바로잡는지를 말씀합니다. 슬픔이 마음을 바로잡기 때문입니다. 초상집의 슬픔과 죽

2022년 설 가정예배 및 추모예배

이해영 목사
(남양주온누리교회)

가 · 정 · 예 · 배

가정예배 지침

- 1) 전통적 제사는 죽은 영혼에 대한 것이나 추모예배는 고인을 회고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본분을 지켜 제사상에 절하는 것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 2) 감사예배와 추모예배의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드리되 함께 만날 수 없는 부

모와 형제들은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드린다면 더욱 뜻깊고 은혜로운 명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예배 중 서로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나 말씀이 담긴 덕담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는 사연을 나눈다면 보다 감동적인 명절이 될 것입니다.

예배순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하나님의 크신 사랑(새15, 통55).....	다같이
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여호수아 1:1~9.....	가족 중에서
설교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설교자
축복의 마음 나누기.....	(말씀에 비추어 돌아가며 서로에게 축복의 마음을 전한다.)	다같이
중보기도		다같이
찬송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경배와 찬양 493).....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들어가는 말

세상은 아직 재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새 시대, 새 역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집트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불러내어 자유를 얻게 하였고,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죽은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새 시대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희망이 꺼져갈 때 오히려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난 세 가지 뜻을 마음에 새김으로써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땅을 차지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가야 할 땅’: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2절). 모세가 죽었다고 하나님의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가야 할 땅이 있습니다. 가

나안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가야 합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가야 할 지평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야 하며, 둘째,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무엇보다 가족과 믿음의 가정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돌보고 섬기며 서로 자라고 성장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과 함께 약속과 비전의 땅으로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져야 할 마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지만 결코 쉽게 차지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하며(2절), 또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5절). 그들의 전차와 싸우고, 성벽을 넘고, 그들의 전략과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반복해서 명령하십니다(6, 7, 9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6, 9절). 그렇습니다. 새 시대를 살며, 새로운 땅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보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은 오직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요일 5:5).

‘지켜 행해야 할 법’: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6절), 하

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7절).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거룩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의 뜻을 땅에 실현하는 전쟁입니다. 단지 가나안 땅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가나안 땅의 정복인 것입니다(8절).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무엇보다 말씀을 따르는 삶을 위해 강하고 담대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인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가는 말

하나님은 이 재난의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땅을 얻도록 세 가지의 마음을 부여주셨습니다. 첫째, 가야 할 땅이 있습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땅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과 온 교회가 함께 가야 할 약속의 땅, 곧 사명과 비전의 땅입니다. 둘째,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는 실력과 경험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셋째, 지켜 행해야 할 법이 있습니다. 단지 성공과 성취의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가나안 땅의 정복입니다(8절). 결국 가야 할 땅으로써의 ‘비전’과 가져야 할 마음으로써의 ‘믿음’과 지켜야 할 법으로써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2022년을 새 시대로 살며 새로운 영토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추 · 모 · 예 · 배

예배순서

오늘 우리는 고(故) 000님을 추모하며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묵상	시편 145:1~4.....	다같이
찬송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새484, 통533).....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마태복음 16:25~28.....	가족 중에서
설교	영원을 살아가는 오늘의 삶.....	설교자
찬송	나의 생명 되신 주(새380, 통424).....	다같이
추모하는 이야기	(고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유품을 통해 고인에 관한 추억을 나눈다.)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영원을 살아가는 오늘의 삶

들어가는 말

고인이 우리의 곁을 떠나간 지 00주기를 맞이하여 드리는 이 추모예배가 인간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고인을 추모하는 이 시

간은 단지 지나간 고인의 과거를 회상하는 자리만이 아니라 아직 삶의 여정 가운데 남겨진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 자리입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을 얻게 될 것이다”(25~26절).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있을 수 없지만, 목

숨이야말로 오직 주와 하나님으로부터만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기에 진리가 됩니다. 따라서 정말 목숨이 소중하다면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주신 분을 위해 사는 것이 합당한 이치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분명한 사실인지 지금이라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올 것이다”(27절).

주님의 처음 오심은 베들레헴의 구유, 비전함 가운데 오셨지만 그의 다시 오심은 전능하신 심판주로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다시 오심이 결코 막연한 미래의 사건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비롭게도 이 미래는 벌써 현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요 3:18).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며 사는 것 자체가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며, 아직 미약할지라도 주를 믿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영광이 됩니다.

“인자가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28절).

예수님은 당시 말씀을 들던 사람들 가운데서 죽기 전에 주의 다시 오심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시 사람들은 이미 모두 죽었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의미는 단지 물리적인 시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은 궁극적으로 미래에 있지만, 그 실상은 성도의 믿음 안에서 이미 현재 속에서 역사하는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도들은 모두 이러한 신앙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의 행복과 기쁨은 밥을 먹는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밥 짓는 냄새가 문 앞까지 흘러가는 순간에도 시작된 것이며, 동네 마당에서 놀던 아이들에게 “애들아! 들어와 밥 먹자”라는 어머니 목소리에서부터 벌써 그 행복과 안식은 시작된 것입니다.

나가는 말

오늘 우리가 고인을 추모하는 것은 여기 남아있는 우리들이 이제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를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고인을 품에 안으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 도와주세요!
자녀를 위한 부모의 축복

“지금부터 축복을 시작하라!”



한은경 권사
(두란노어머니학교 이사장)

자녀는 부모의 축복을 먹고 자란다.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늘 축복해야 한다. 부모의 기도대로 자녀가 자란다.

“너는 이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거야.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인물이 될 거야.”

자녀가 시험을 못 봐서 풀이 죽어 있다면 용기를 주고 축복해준다.

“괜찮아. 내가 아무리 시험을 못 봐도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해. 기운 내고, 다음에

최선을 다하자!”

출근하기 전에 자녀를 위한 축복의 말을 잊지 말자. 부모의 축복으로 자녀의 하루가 달라진다.

“오늘 너를 만나는 사람들은 행복할 거야. 너는 우리 가정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자랑이야.”

너무 바빠서 아이들 얼굴조차 보기 힘들 때는 문자메시지로 축복을 전하면 된다.

“너는 엄마 아빠의 자랑이란다. 엄마 아빠는 네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기도할 때 축복을 가장한 잔소리를 하면 안 된다. “우리 아이가 꼭 명문대학교에 가게 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동생을 때리지 않게 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부모의 말을 잘 듣게 해 주세요” 등과 같은 말은 축복이 아니다.

“어쩌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에 태어났니? 너 같은 애는 우리 집에 필요 없어. 나가! 꼴도 보기 싫다”,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게 창피하다. 넌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니?” 등과 같이 아이의 자존감을 건드리는 말도 삼가야 한다. 말에 담긴 부모의 부정적인 감정을 자녀들

이 읽는다. 부모의 폭력적인 언어에 아이들이 상처를 입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민 6:27)고 말씀하셨다.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면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다. 아버지는 축복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입술은 축복의 통로다. 아버지의 손은 축복의 도구다. 매일매일 자녀들을 축복해야 한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축복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축복해줘야 한다. 밤늦게 퇴근해서 아이들이 자고 있다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라. 아버지의 축복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부모의 축복은 아이들의 영혼에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 그 씨앗이 자라서 싹을 틔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부모에게 축복 받고 자란 아이들은 건강한 자화상을 갖게 된다.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다. 아이들은 부모가 비춰주는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화상을 형성해 간다. 그것을 ‘내면화 과정’이라고 한다.

만일 자녀에게 상처 준 말을 한 기억이 있다면 정식으로 사과하라. 자녀에게 용서를 빌어야 한다. 이제부터는 축복의 말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결단하라.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훈육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훈육도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훈육도 사랑과 존중의 기초 위에서 해야 한다. 훈육을 핑계 삼아 아이들의 자존감을 뒤흔드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분명한 것은 아이들은 부모의 축복을 먹고 자란다. 부모의 축복을 받고 자란 아이의 삶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날마다 아이를 축복하라. 자녀와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오늘부터 축복의 입술로 바꾸어라. 자녀가 안정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축복을 시작하라.

성경 QUIZ



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계실 때 동네에서 ‘죄인’으로 알려진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왔어요. 그 여자는 예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공경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어요. 또 이것이 든 옥합을 가져와 예수님의 발 위에 깨뜨리고 이것을 부엌담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행동을 보시고 죄를 용서해주셨어요(눅 7:36-50). 여자가 깨뜨린 옥합 안에 들어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14. 좋은 땅



차세대 슬기로운 방학생활 겨울편

‘QT하고 고구마먹자’ 참가 소감

“QT하는 습관을 만들었어요!”

“저는 전부터 QT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무슨 일이 있거나 바쁜 일이 생기면 QT를 미루기도 했어요. 그런데 ‘QT하고 고구마먹자’에 참가하면서 아무리 바빠도 QT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었어요. QT하면 선물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차세대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공동체 의식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양성모 학생
(서빙고 소년2부)

“QT랑 말씀 암송 계속할 거예요!”

“평소에도 QT를 하고 있어요. 매일 꼭 하는 일 중 하나예요. 슬기로운 방학생활 겨울편 ‘QT하고 고구마먹자’가 QT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선물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고구마는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말랑말랑 톨레레게> 암송카드는 이상하지만 재미있어요. 간식을 받는 이벤트가 없어서 QT와 말씀 암송을 계속할 거예요!”



최범규 학생
(서빙고 초등2부)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됐어요!”

“저는 홈스쿨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이 QT예요. 그런데 QT를 숙제하듯 해칠 때가 많았어요. ‘QT하고 고구마먹자’에 참가하면서 QT를 집중해서 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QT하면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어요. <말랑말랑 톨레레게> 암송카드를 이용해서 말씀을 암송하니까 더 잘 되고 재미있어요.”



양은지 학생
(서빙고 초등2부)

“성경일독도 해보고 싶어요!”

“일곱 살 때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QT를 해요. QT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QT하면 내가 몰랐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어요. ‘QT하고 고구마먹자’에 참가하면서 말씀을 더 잘 알고 싶어지고, 말씀 암송을 더 잘하고 싶어졌어요.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감사해요. 앞으로 성경일독도 해보고 싶어요!”



김주안 학생
(서빙고 유년3부)

페이션스 고메즈가 예쁜 신발 신고 걸은 날

감비아 5세 어린이 왼쪽 발가락 재건 수술 지원

선천적으로 왼발에 장애가 있는 페이션스 고메즈(감비아, 5세)는 예쁜 신발을 신고 걷는 게 소원이었다.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 페이션스 고메즈에게 온누리교회 이창수, 이교행 선교사 부부를 보내주셨다. 이창수, 이교행 선교사를 시작으로 온누리교회 5개 선교기관, CMN(Christian Medical Network), 찬양 사역공동체까지 페이션스 고메즈가 예쁜 신발을 신고 걸을 수 있도록 두 팔을 걷어붙였다. 페이션스 고메즈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발가락 재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오는 2월 8일 마지막 진료를 받고 감비아로 돌아갈 예정이다. 지난 1월 23일 서빙고온누리교회 공원에서 페이션스 고메즈와 마이무나 멘디 모녀를 만났다. 그들의 표정에 이미 천국이 있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페이션스 고메즈(가운데)와 마이무나 멘디(좌) 모녀가 이교행 선교사(우)와 걷기 연습을 하고 있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왜 선교지 아이들을 더 열심히 섬겨야 할까? 어른들은 전도하기 어렵기 때문일까? 아니면 다음세대 복음화율이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일까? 물론 둘 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선교지 아이들을 더 열심히 섬겨야 하는 이유는 지극히 작은 자가 곧 예수님이

기 때문이다. 올해도 온누리교회 선교가 선교지의 아이들을 더 열심히 섬겼으면 좋겠다. 공원에서 예쁜 신발을 신고 걷는 페이션스 고메즈를 보면서 든 생각이다.

페이션스 고메즈는 2017년 아프리카 감비아의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날 때부터 왼쪽 발가락이 두 개뿐이었다. 발바닥도

V자로 갈라져 제대로 걷거나 뛰어본 적이 없다. 한창 뛰어다닐 때인데도 그럴 수 없었다. 또래들이 뛰어다니는 모습만 바라볼 뿐이었다. 페이션스 고메즈의 엄마 마이무나 멘디는 딸의 장애 극복이 늘 기도제목이었다. 감비아에서는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면 자기 몫을 해야 한다. 페이션스 고메즈도 여건이 다르지 않다. 그 불편한 다리로 물을 길어오고, 주방에서 음식 재료를 다듬었다. 너무 안타까웠지만 가족들도 기도말고는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한국에서 기적이 찾아왔다

2020년 페이션스 고메즈 가족에게 기적이 찾아왔다. 하나님이 이창수, 이교행 선교사 부부를 만나게 하셨다. 당시 인도에서 추방당한 이창수, 이교행 선교사 부부가 다음 선교지로 감비아를 선택했다. 페이션스 고메즈 가족은 마을에서 예배드리던 소수민족이었는데 함께 예배드릴 한국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창수, 이교행 선교사 부부를 찾아왔다.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했다. 이교행 선교사의 눈에 페이션스 고메즈가 띄었다. “걷는 게 굉장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뒤에 서서 얼굴을 잘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페이션스 고메즈를 향한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온누리교회 의료 선교팀인 CMN에 수술이 가능한지 문의했습니다.”

이교행 선교사의 요청을 받고 CMN 소속 전문의들이 여러 차례 회의했다. 결론은 “수술이 가능하다”였다. 기왕이면 비슷한 사례 수술 경험이 있는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면 더 좋을 것 같아 수소문 끝에 서울대병원 소

아성형외과 권성택 교수를 찾았다.

그 다음은 돈이 문제였다. 페이션스 고메즈의 수술비, 모녀의 비행기 표, 체류비 등을 고려하면 꽤 큰 비용이 필요했다. 이창수, 이교행 선교사 부부가 기도편지를 보내 페이션스 고메즈의 이야기를 알리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했다. 찬양사역공동체에서는 비행기 표, 체류비, 한국에서 탈 차량을 후원했다. 온누리교회 5대 선교기관(2000선교본부, 두란노해외선교회, Acst29비전빌리지, NGO 더멋진세상, 온누리M미션)도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페이션스 고메즈는 지난해 11월 29일 엄지 발가락을 나눠 발가락을 총 세 개로 만들고, 폭 파인 발바닥에 살을 덧대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꿈에도 잊지 못할 3개월

페이션스 고메즈와 마이무나 멘디 모녀는 한국에서 꿈에도 잊지 못할 3개월을 보냈다. 한국 음식이 낯설고 매서운 추위에 적응하는 게 힘들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마이무나 멘디는 사는 게 너무 바빠 딸을 돌볼 겨를도 없었는데 딸과 꼭 붙어 있으면서 깊은 모녀의 정을 쌓았다. 지난 1월 23일에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서빙고온누리교회 공원에서 걷기 연습을 했다. 페이션스 고메즈가 신은 두툼한 겨울 신발이 참 잘 어울렸다. 지금은 걷는 게 조금 불편하지만, 올해 여름이면 친구들과 함께 달릴 수 있을 것이다. 페이션스 고메즈와 마이무나 멘디 모녀가 서툰 영어로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Thank you”라고 인사했다. 짧지만 여운이 긴 인사를 남겼다.

선교칼럼



이교행 선교사

선교지에는 아이들이 참 많다. 우리 부부의 첫 선교지였던 부탄과 국경을 접한 인도의 A마을에도 아이들이 참 많았다. 남편 이창수 선교사는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고, 나는 학교와 마을에서 음악 수업을 했다. 인도에서 만난 아이들은 체육과 음악을 신기해했다. 아이들이 좋아하면 덩달아 어른들도 우리를 좋아한다. 우리 부부는 인도에 선교 터전을 꾸렸다. 그런데 인도 정부로부터 추방을 당했다. 한국에 들어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아프리카 감비아를 보여주셨다. 생각지도 않았던 나라였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했다.

우리 부부가 감비아에 도착했을 때 찾아온 무리가 있었다. 페이션스 고메즈 가족의 공동체였다. 가정예배를 드리던 공동체였는데 마침 한국에서 선교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이창수 선교사는 감비아에서도 태권도 도장을 운영한다. 나는 영어책을 읽어주는 사역을 하고 있다. 감비아는 영어권 나라인데 어른들은 영어를 못 쓴다. 학교나 유치원에서 영어를 배운 아이들만 듣거나 말할 수 있다.

학교 앞에서 책을 들고 있으면 외국인을 처음 본 아이들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나 책

을 읽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구름 떴처럼 몰려든다. 그 광경이 신기한지 어른들도 내가 읽는 책 내용을 듣곤 한다. 이렇게 관계 맺은 아이들이 선교센터로 발걸음을 옮긴다. 손을 씻고 인사하고 나서 재미있게 책을 읽는다. 아이들의 뽀뽀한 눈망울을 보고 있으면 감비아의 장래가 밝다는 생각이 든다. 선교센터 수업에 종종 늦는 아이들이 있다. 무엇하냐 늦었냐고 물으면 ‘물을 길어오느라 늦었다’, ‘밥을 차리느라 늦었다’고 말하곤 한다. 아직 학교에도 안 간 아이들인데 말이다. 감비아에서는 걷기 시작하면 자기 몫을 해야 한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수업 내내 발꿈치를 만지길래 왜 그러냐고 물었다. 자는 사이 집에 쥐가 들어와 뒤꿈치를 갇아 먹었다고 했다.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것도 많고, 알려주

고 싶은 것도 많다. 얼마 전부터는 가정에 태양광 전등을 달아주는 사역을 하고 있다. 한화로 10만 원 정도면 집안에 두는 랜턴과 집 앞에 가로등을 세울 수 있다. 그 빛으로 아이들이 책도 읽고, 골목길도 안전하게 다니면 좋겠다.

온누리교회 선교기관과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도움 덕분에 페이션스 고메즈가 발가락 재건 수술을 잘 마칠 수 있었다. 발가락이 생긴 것도 기쁜 일이지만 자녀를 돌본다는 개념이 약한 감비아 엄마가 자녀에게 애정을 쏟는 시간을 보내서 감사하다. 내가 보낸 기도편지를 읽고 성도님들께서 발 벗고 나서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선교지에는 아이들이 정말 많다. 감비아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지의 아이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선교지에 아이들이 참 많다

대한민국 '피(血)' 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함께하면 더 좋은 헌혈!

온누리복지재단 직원 43명의 생명 나눔

함께하면 좋은 것이 참 많다. 맛있는 식사, 경치 좋은 곳으로 떠나는 여행, 건강을 위한 운동도 함께하면 그 즐거움이 배로 늘어난다. 함께하면 좋은 일이 또 있다. 생명을 나누는 헌혈이다. 온누리복지재단이 바로 그 행복을 경험했다.

지난 1월 13일(목) 온누리복지재단 법인사무처 및 산하시설 15곳 직원 43명이 대한민국 '피(血)' 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이하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여했다. 한 마음혈액원 헌혈 버스를 불러 서빙고온누리교회 주차장과 서초50플러스센터 주차장에서 다 함께 헌혈했다. 단체 헌혈에 참여한 온누리복지재단 직원들의 고백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 묻어있었다.

강유림 사회복지사(서초중앙노인종합복지관)는 생애 첫 헌혈을 온누리복지재단 동료들과 함께했다.

“생애 첫 헌혈이라 망설여지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도 2022년을 생애 첫 헌혈로 시작함에 있어,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어서 용기낼 수 있었습니다. 동료뿐만 아니라 산하시설의 더 많은 온누리복지재단 패밀리가 다함께 참여한다고 생각하니 생명나눔에 더 힘찬 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유림 사회복지사는 첫 헌혈을 마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을 느꼈다.

“세상은 함께 움직이는 힘과 작은 실천으로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누리복지재단에서 실시한 단체 헌혈이 세상을 바꾸는 초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웃에 생명을 나누고 살리는 일을 함께하고 있다

는 사실이 정말 기쁩니다. 귀하고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신 온누리복지재단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찬범 사회복지사(온누리복지재단 법인사무처)는 온누리복지재단 단체 헌혈에 참여하면서 헌혈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

“저는 이번 헌혈이 딱 10번째입니다. 학교 다닐 때 했던 헌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영화표를 받거나 봉사 시간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헌혈이 누군가와 생명을 나누는 일이라고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온누리복지재단 동료들과 함께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여하면서 헌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돕는 것뿐만 아니라 헌혈도 이웃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황찬범 사회복지사는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헌혈을 이어가기로 했다.

“온누리복지재단의 사명이 ‘우리는 존재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이웃을 위해’입니다. 이번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여하면서 온누리복지재단의 사명이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듯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들을 위해 헌혈하면서 생명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계속 헌혈에 동참하겠습니다.”

가족,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헌혈하면서 큰



온누리복지재단 직원들이 생명나눔의 기적 헌혈 캠페인에 참여했다.

기쁨을 느끼는 기회가 있다. 온누리교회 '생명나눔의 날'에 동참하는 것이다. 생명나눔의 날은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독려하고자 마련된 행사다. 2월 5~6일, 12~13일 서빙고온누리교회 주차장, 2월 6일과 13일 양재온누리교회 주차장, 도곡온누리교회 숙명여고 주차장, 27일 수원, 부

천, 인천온누리교회 주차장에 헌혈 버스가 방문한다. 생명나눔의 날 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하면 된다. 헌혈은 한 시간 간격으로 이어진다. 시간대별로 선착순 10명 신청할 수 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생명나눔의 기적 한 줄 소감

· 작은 실천이지만, 생명을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동참합니다.

/ 이강현 성도

· 주님께서 건강 주셔서 헌혈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 엄춘식 성도

· 3년 전 즈음부터 2~3개월 주기로 정기적 헌혈을 하기 시작해 그전 헌혈 포함 지난 12월 제 인생 열다섯 번째 헌혈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기여하고자 헌혈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나승현 성도

· 사랑의 빛을 연초마다 피로 갠게 되네요. 60세 전에 헌혈하면 64세까지도 헌혈 가능하답니다.

/ 장봉순 성도

· 살림! 올해도 귀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강과 마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 년에 2번을 목표로 ^^

/ 김주홍 성도

· 자그마한 섬김이 소아암으로 고통 중에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으로 달기를 기도합니다.

/ 전진 성도

· 예수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건강함을 주셔서 나눌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이 피로 한 생명이 구원받길 소망합니다.

/ 김영택 성도

·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피로회복에 참여하게 되었네요. 헌혈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 송석근 목사

· 광화문 헌혈의 집에서 101번째 헌혈!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할 수 있음에 늘 감사합니다! 헌혈할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 허경 성도

· 생명의 나눔을 통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길 소망합니다.

/ 홍기완 목사

· 건강 관리를 하고 있던 중 피로회복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철분 수치도 혈관도 좋아서 처음 헌혈을 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되어 어찌나 감사한지요. 제 첫 헌혈은 피로회복으로 시작합니다.

/ 김지선 전도사

· 예수님의 피로 나를 살려주심에 감사하고 나의 피로 이웃을 살리게 해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서영철 전도사

· 헌혈하는 동안 예수님의 은총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의 기쁨을 맛볼 수 있어 감

사했습니다.

/ 류호명 성도

·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 백성근 성도

· 헌혈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 이응선 성도

· 버리고 버리기만 하다가 교회에서 밀어주셔서 헌혈했습니다. 사람 사이가 가로막히는 것 같은 코로나 상황에 예수님의 피가 흘러가 막힌 담이 할리기를 소망하는 시간입니다.

/ 김미정 목사

·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혈액이 보내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을 생각하니 너무나 벅찬 마음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 이은주 성도

전문가 기고

별과 같이 빛날 기쁨이 있는 선택!

또 하나의 사명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 지원'



김수민 권사
(동대문중앙공동체,
(사)글로벌코리아
이사장,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사람은 새해가 되면 다짐을 반복한다. 1월 1일 새해부터 바꾸고 싶은 습관을 적어보고 주변에 말하기도 하는데 비그리스도인들은 금연이나 금주가 많고, 그리스도인들은 새벽기도나 성경통독, 운동, 다이어트 등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작심삼일(作心三日)이라고 채 한 달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다 민족의 명절 설을 맞이한다. 작심삼일 했던 많은 이들이 “한국인은 이제(구정 설)부터가 진짜 새해”라며 하늘이 다시 주신 시작의 기회에 스스로를 위로한다. 그러나 별반 달라지는 것은 없다. 어찌됐든 새해는 뭔가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하고 변신의 전환점이 되는 에너지의 계절이다.

로또에 목숨 건 사람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년 초 한 TV 뉴스에 불황 없는 가게들이 소개되었다. 바로 로또 1등이 많이 나온다는 명당 판매점이었다. 로또 명당 판매점 앞은 늘 장사진이 차려져 있다. 마치 아이돌그룹 공연에 몰려든 팬카페 소녀 회원들처럼 길게 줄지어 있는 모습이 보였고, 축구경기가 있는 날 월드컵 경기장 진입로에 길게 줄 선 것 같은 차량들도 비쳐졌다. 로또 명당 자리에서 복권을 사기 위해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것도 불사하는 모습이었다. 그만큼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손주를 세뱃돈이라도 챙겨 주려고 찜짓돈 들고 나온 어르신도 있었고, 영업제한으로 불경기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소상공인,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까지 코인시장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청년들이 희망을 꿈꾸는 기대감으로 만들어내는 시간의 풍경이었다. 그렇게 줄 서서 로또를 사려는 사람들 안에는 크리스천들도 섞여 있을 것이다. 하지만 누가 그들을 정죄할 수 있을 것인가?

인생의 역전을 기대하게 만드는 로또 1등의 당첨 확률이 얼마나 될까? 온라인의 경우 1,098만 장 중 1장, 오프라인은 850만 장 중 1장꼴로 당첨자가 나온다고 한다. 2020년 기준으로 로또 판매금액이 온라인을 합쳐 하루 평균 130억 원이라고 한다. 1년이면 무려 4조7천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로또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당첨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로또 1등 당첨으로 거대한 부를 갖게 되고, 모든 꿈을 이루고, 사



양화진 외국인선교사 묘원.

“

코로나19가 계속되는 동안
한국의 1만2천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
현지에서 순교한 선교사들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선교가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회적 신분이 바뀔 거라는 벅찬 기대감 혹은 빛을 청산하고픈 마음 등 갖가지 행복한 상상을 할 것이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부와 맞닥뜨린 사람 중에는 가정이 파괴되거나 폐인이 된 경우도 적지 않다. 한번은 후배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던 상사와 일한 적이 있었다. 그분은 부서원들의 생일날이면 특이하게 복권을 사주곤 했다. 원래 메모광이었던 나는 그 상사한테 복권 대신 1년 동안 쓸 수 있는 포스트잇 메모지를 사달라고 부탁했다. 천만분의 1이라는 복권 당첨 확률을 믿느니 메모를 열심히 해서 주어진 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의 디딤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도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메모의 습관이 당시 업무의 시행착오를 줄여주기도 했지만, 많은 영감의 기록물이 되어 지금까지 좋은 글과 스피치의 원천이 되고 있다.

복음에 인생을 건 사람들

인생의 로또는 각자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선택의 기준이 된다.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는 길’에서처럼 내가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은 길에 의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생계 수단인 그물을 내

던지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 바울 사도를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에 비참한 죽음까지 겪은 사람들이다. 당시 혹자는 그들에게 가족은 안중에도 없고 어리석은 길을 택했다고 비난했을 것이다. 그들이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를 생명보다 소중한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다. 조선 선교 초기에 질병과 핍박이 가득했던 미개국을 선택했던 서양 선교사들은 대부분 모국에서 로또같이 앞길이 보장된 직업과 부를 포기한 채 조선을 택했다.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소명으로 맞바꾼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들이었다.

지난해 KBS에서 성탄특집 뮤지컬 다큐 ‘머슴 바울’ (권혁만 PD)이 방영되었다. 1894년 조선에 온 의료선교사 제임스 홀 부부는 머슴 김창식을 친구로 대하며 복음을 전했다. 머슴 김창식은 주님을 영접한 이후 온갖 핍박을 이겨내고 사도 바울처럼 조선을 순회하며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순회 전도자가 된다. 한 아이의 아빠였던 제임스 홀 선교사가 태종의 아이(딸)를 둔 채 전염병으로 순교했다. 그의 아내 로제타 홀 선교사는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몇 년 후 두 아이를 데리고 다시 조선을 와 의료선교를 이어갔다. 유난히 민들레를 좋아했던 어린 딸

에디스도 이질에 걸려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내는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 아들을 의료선교사로 키워내고, 아들의 친구로 자란 머슴 바울의 아들도 의료선교사가 된다. 로제타 홀 선교사가 처음 조선을 선택하고 남편의 순교에 이어 자녀들을 데리고 전염병 위험이 도사렸던 이 땅에 다시 오게 한 선택, 딸의 죽음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던 선택의 힘이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 그것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주님을 사랑한 주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외에도 양화진 외국인선교사 묘원에 가 보면 선교사 부모를 따라서 한국에 왔다가 풍토병으로 생명을 잃은 자녀들의 작은 무덤들이 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가슴이 먹먹해진다.

선교사와 선교사 자녀를 위한
회복프로그램 및 실무교육 지원

코로나19가 계속되는 동안 한국의 5만8천개 교회 중에서 1만2천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한다. 현지에서 순교한 선교사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로 인해 선교가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연초에 온누리교회 여성 선교사님들의 간증집 <별을 따라 걷다>를 읽으면서 깊은 도전과 감동을 했다. 간증집 <별을 따라 걷다>에 실린 여성 선교사님들은 복음의 빛을 갠기 위해 해외 난민촌과 무슬림 지역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는 분들이다. 그런데 안타깝게 한국 교회의 지원이 끊겨 귀국해있는 선교사 가정도 적지 않다.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선교사 자녀(MK)들의 사연도 많다. 선교사 자녀들은 태어나 보니 선교지였다. 혹은 부모를 따라 오지의 선교사 자녀가 되었다. 자신의 의지로 택한 길이 아니었기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 더욱이 현지의 심한 박해나 코로나19로 부모님이 갑자기 순교한 경우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우울증까지 겪고 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현지에서 입국을 거절당해 공항 청사에서 숙وخ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어렵게 한국에 들어와도 문제다. 국적은 대한민국인데 중도 입국자가 되어서 학교에 적(籍)을 두기 어렵다. 그들은 이중 언어가 가능해서 은혜를 받으면 다시 선교지로 나갈 수 있는 자원이다. 한국에서도 차세대 리더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당장 도움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그들이 자비량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선교사 자녀 회복 프로그램과 실무교육 지원에도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단 12:3).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섬김의 마음으로

“신혼부부입니다. 다니는 교회가 달라서 주일마다 고민됩니다. 아내는 원래 다니던 교회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집에서도 가깝고, 친한 교회 친구와 친정 가족(부모)이 있거든요. 한 동안은 아내가 저를 따라 온누리교회로 왔는데 다니던 교회에서 느낀 알뜰살뜰 챙김 받는 기분이 안 들고, 소속감이 안 든다면서 원래 다니던 교회를 혼자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온누리교회가 좋고, 익숙하고, 친한 사람들도 많고, 이곳을 떠나기가 싫는데 어쩌하면 좋을까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결혼은 남자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창 2:24). 부부는 한 몸이요, 한 지체다.

신혼부부들이 하나의 교회를 정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어느 교회로 갈 것인가?’이다. 원(原)교회를 떠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자라온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완전히 낯선 세계로 가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교회마다 세워진 이유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따라서 새로운 교회를 가게 되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신앙의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양보하기가 쉽지 않다. 서로 양보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강해질 것이다. 그 교회에 가지 말

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섬기는 마음으로 먼저 함께 해주기를 결단해보는 게 어떨까? 더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님이 먼저 손을 내밀고,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아내에게 보여주면 그 마음을 알고, 사랑이 풍성한 가정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을 보여주셨다. 섬겨야 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자에게 보여주면 사랑이 풍성한 가정이 될 것이다.”

아야 하는 이유에 집중하려는 마음도 생길 것이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아니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김을 보여주셨다. 섬겨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셨다. 예수님의 마음이 형제님의 마음에도 있기를 소망

물론 기도하고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다. 그 교회의 비전이다. 그 교회의 비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나의 비전과 충돌이 없는지를 진지하게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비전이 있다면 자매님께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해 보기를 바란다.

지금은 교회를 정하는 문제가 큰 문제로 여

겨지겠지만, 섬기기로 마음먹음과 동시에 교회가 어디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이기 때문이다. 문화적 차이가 처음에는 크게 다가올 것이다. 하지만 문화는 적응하면 되는 것이다. 옆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손잡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이 결단했을 때 하나님을 더 깊고 뜨겁게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낯선 곳으로의 여행은, 그곳에서 마주하게 되는 외로움의 시간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먼저 섬기기로 결단한 형제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더욱 단단하고 굳세게 하실 것을 믿는다. 귀한 시작을 응원한다.



배행삼 목사
(요셉청년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바라보면 ‘옥시토신’이 나오는 부부

반려견을 키운 지 9년 정도 됐다. 반려견을 키우면 유익이 많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우선 심리,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다. 강아지와 눈 맞춤을 하면 ‘옥시토신’이 어느 정도 분비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옥시토신은 신뢰와 애정, 연결감을 느끼도록 하는 작용을 한다.

반려견이 주는 힐링 포인트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특히 처음 강아지를 키울 때 몸 곳곳에 상처가 생긴다. 강아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탓에 강아지가 순식간에 맹견처럼 변하는 경험을 종종 했다. 할퀴어서 상처가 나고, 물리고 긁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가벼운 상처에서 심각한 상처까지 몸 곳곳에 흔적이 남았다. 한 번 상처가 나면 아물 때까지 일주일 정도 회복 기간이 걸렸던 것 같다. 애완견이 맹견이 돼서 상처를 남길 때 정말 싫은 마음이 든다. 그런데 잠시 시간이 지나면 맹견이 애완견으로 바뀌어 힐링 파트너가 되어준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강아지가 긴장하는 상황, 경계하는 상황, 짖을 것 같은 상황을 예견할 수 있게 됐다. 눈동자, 몸을 약간 움츠리는 변화만 보더라도 ‘이제 맹견으로 바뀔 때가 됐구나’라고 직감하고 피하거나 상황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게 됐다. 인간의 마음도 때로 비슷한 면이 있다. 반려견처럼 신뢰감을 주기도 하고, 편안

함을 주는 모습도 있지만, 어느 순간 맹견으로 변해서 자신을 할퀴고, 배우자와 주변 사람들을 할퀴는 모습으로 변하기도 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로젠버그의 <비폭력 대화>에서 ‘자칼의 말’과 ‘기린의 말’을 비교 설명한다. 자칼은 육식성을 가진 포유류이다. 자칼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는 공격적이고, 교활하고, 약삭빠름 등 비교적 부정적이다. 이 때문에 자칼의 말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의미한다. 반면 기린의 말은 자칼과 정반대의 의사소통 방식을 구사한다. 기린의 말은 관찰과 느낌, 요구와 욕구를 파악하고 부탁하는 단계를 거친다. 자칼의 말이 급하고, 공격적이며, 정제되지 않은 심한 말들을 쏟아낸다면, 기린의 말은 상황을 조망하고, 내면을 살피며, 참된 욕구나 필요를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공감적인 대화 형태로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자칼의 대화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연습으로 기린의 따뜻한 언어 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 물론 사람이 한 가지 형태의 대화 형식을 사용한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두 가지 말의 형태를 모두 사용하는데 그 빈도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반려견 혹은 기린과 같이 따뜻하고 온화한 말을 할 때가

있다. 그런데 갑자기 맹견이나 자칼처럼 순식간에 무섭게 변하기도 한다. 부부 갈등이 극에 달해서 부부싸움을 할 때 배우자가 난폭한 말을 쏟아낸다면 상대편 배우자도 무서운 자칼의 본성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부부는 상호 작용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부정적이고 난폭한 말과 행동을 표출한다면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악순환 반복을 거듭하면 그 강도가 훨씬 강하게 나타난다. 부부가 지켜야 할 중요한 선이 있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모든 관계의 신뢰와 성실과 존경을 짓밟아 버리는 범죄행위가 된다. 물론 폭력의 범위는 물리적인 폭력과 언어적 폭력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폭력적인 말과 행동은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기억으로 서로의 관계를 파괴한다. 자신의 마음이 맹견 혹은 자칼과 같이 변하지 않도록 지키고, 입술을 지키는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 배우자가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맹견 혹은 자칼처럼 변해가도록 부정적인 자극을 제공하지 않는 절제력과 지혜도 필요하다.

부부 관계에서 다양하게 경험하는 갈등과 심리적 불편감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 혹은 냉정하게 파악하고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우선 파악해야 한다. ‘배우자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왜

내가 느끼기에 무시하는 것 같은 말을 할까?’ 등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부부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감정대로 대응하기보다 그 상황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관찰하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느낌과 감정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자신의 느낌과 욕구를 ‘나 전달법’을 활용해서 전달하는 것이 좋다. 분명한 것은 상대가 맹견과 같이 공격적인 말을 할 때 맞받아쳐서 공격적으로 말하면 부부 관계는 더 깊은 분쟁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은 그 분쟁을 통제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상적인 것은 부부가 함께 기린의 말을 시도하는 것이다(잠 15:1).

사랑하는 사람과 눈을 마주볼 때 옥시토신을 경험한다. 우리 부부의 관계를 돌아보면 좋겠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친밀함을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적대감을 느끼고 있는지 말이다.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옥시토신이 주는 연결감, 친밀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부부가 되어야겠다(아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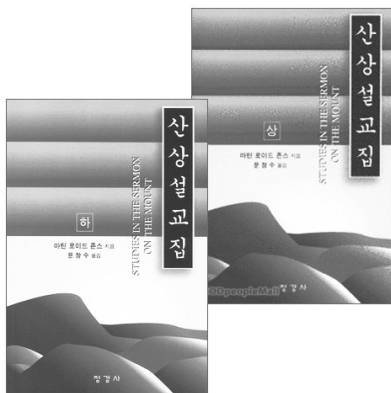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책 읽어주는 목사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소금과 빛’ 이어야 한다”



〈산상설교집 상·하〉

마틴 로이드 존스 저 | 정경사 | 14,000원

성경에서 산상수훈 말씀은 메시야가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 선포한 왕의 취임사와 같은 메시지다. 지금까지 수많은 성서신학자들이 산상수훈의 올바른 의미가 무엇인지 탐구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했다. 예컨대 이 말씀의 삶의 자리가 무엇이며,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내세적 모습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인지 또는 실재하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인지 등 다양한 논쟁이 있었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일치되는 결론은 산상수훈은 위대한 메

시아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실천해야 하는지 해석을 요구하는 메시지라는 사실이다.

20세기 들어 산상수훈에 대한 가장 명확한 해석을 제시한 사람이 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다. 그는 웨스트민스터교회(1950~1952년)에서 목회하면서 산상수훈 말씀을 강론한 뒤에 이것을 잘 정리해서 세상에 내놓았다. 그 책이 오늘 소개하는 〈산상설교집〉이다. 이 책을 통해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일약 세계적인 말씀 강해자로 우뚝 서게 되었다. 그 정도로 탁월한 주해와 해석, 삶의 적용과 깊이까지 더해져 그의 저서 중에서 손꼽히는 책으로 알려져 있다. 일단 손에 들고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 강해설교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얼마나 그 내용이 깊고 풍성한지 이 책이 출간된 이후 모든 설교자들이 산상수훈을 설교할 때 참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전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감명 깊었던 점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존의 신학자들처럼 현세적이거나 내세적으로 해석하기를 거부한 것이다. 오직 중생과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단계를 살아가는 여정으로 해석한다.

이 책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탐사(investigation)’, ‘시금석(standard)’, 자연인을 뜻하는 ‘생래적(innate)’이다. 저자만의 독특한 표현이다. 그가 이 단어들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팔복의 특징이 내면의 세계와 관련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거듭난다는 의미다. 이러한 의미에서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지켜야 할 행위 규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이 성령 안에서 지니게 되는 은혜 구원의 결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는 과정’으로 묘사한다. 여덟 단계로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심령이 가난한 것에서 애통하는 것과 온유함과 의에 주리고 목마른 과정은 산 정상상을 향해 오를 때 경험하는 개인적인 영적 체험이다. 영적 정상에서 최고봉에 오르게 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진다. 그분을 더 알아갈수록 의에 주리고 목마른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갈망 때문이다. 이때 그리스도인이 자칫 자만에 빠지거나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하나님은 거듭난 영혼을 다시 네 단계를 통해 속사람을

성숙하게 한다고 말한다. 먼저 이루어진 1~4단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면, 5~8 단계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이다. 의의 힘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을 긍휼히 여기고, 세상 속에서 더 마음이 청결해야 하며,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종 삶이다(〈위대하지 않은, 선한 그리스도인을 찾습니다〉(이재훈 저), pp. 60-65 참조).

흔히 지나치게 내세적인 것만을 바라거나 지나치게 현실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려 한다. 그러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산상설교집〉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소금과 빛’ 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가 선 이곳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간다고 일갈한다.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에서 받은 풍성한 은혜를 더 깊이 내면화시키기 위해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김상수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보면 좋은 영화

온 가족이 함께 떠나는 순례!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서’
로버트 페르난데스 감독
/ 애니메이션 / 2019년 개봉

설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기독교 애니메이션을 한 편 추천한다. 기독교 고전 중의 고전, 크리스천이라면 꼭 한 번 읽어야 할 〈천로역정〉(존 버니언 저)을 3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영화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서’다.

영화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서’는 원작인 〈천로역정〉의 1부 ‘크리스천의 순례’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다. 원작의 다소 어려운 부분을 어린이들까지 이해하기 쉽도록 재미있게 풀어냈다.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순례를 떠나기 딱 좋다.

영화 내용은 원작과 같다. 천국을 찾아 순례의 길을 떠나는 주인공 ‘크리스천’의 이야기다. 크리스천의 순례길을 방해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다. 자기 고집으로 천국 가는 길을 포기하는 ‘고집쟁이’, 조그마한 고난에도 마음을 바꾸는 ‘변덕쟁이’, 넓고 편한 길로 유혹하는 ‘세상잘난’ 등 크리스천이 천국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하지만 그때마다 크리스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들이 있다. 크리스천을 응원하는 ‘전도자’부터 필요할 때마다 도

움을 주는 ‘도움’, 또 왕의 말씀을 해석해주는 ‘해석자’가 크리스천의 순례 여정을 돕는다.

크리스천이 천국을 찾아가는 여정이 우리의 인생과 닮아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올바른 삶의 방식을 배우게 된다. OTT 서비스 네이버 시리즈온, 티빙, 웨이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2022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

전 세계 기독교인 7명 중 1명이 박해받는다

기독교 박해국 1위 아프카니스탄, 2위 북한, 3위 소말리아

오픈도어선교회가 지난 1월 19일(수) CGNTV 본사에서 〈2022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오픈도어선교회는 “전 세계 기독교인 3억 6천만 명이 박해를 받는데 이는 전체 기독교인 7명 중에서 1명이 박해받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역대 가장 높은 수치이며 이슬람 무장 세력이 장악하는 지역이 늘수록 함께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세계 기독교 박해국 리스트도 발표했다. 1위 아프카니스탄, 2위 북한, 3위 소말리아 등의 순이다. 세계 기독교 박해국 리스트에서 20년 만에 1위가 달라졌다. 아프카니스탄이 북한을 제치고 기독교 박해국 1위에 올랐다. 아프카니스탄 수도가 탈레반에게 함락되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신앙이 드러난 기독교인 남성은 사형을 당하고, 여성들은 강제결혼, 강간, 인신매매의 위협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기독교 박해국 2위를 기록했는데 그 수위가 낮아진 것은 아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북한의 기독교 박해 강도가 더욱 세졌고, 이로 인해 북한 기독교인들의 상황이 극도로 악화했다”면서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 형제자매들이 중보기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세계 기독교 박해국
리스트(1~20위까지)

박해 순위	국가명
1	아프카니스탄
2	북한
3	소말리아
4	리비아
5	예멘
6	에리트레아
7	나이지리아
8	파키스탄
9	이란
10	인도네시아
11	사우디아라비아
12	미얀마
13	수단
14	이라크
15	시리아
16	몰디브
17	중국
18	카타르
19	베트남
20	이집트

매일, 꾸준히, 함께 읽어서 좋다!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 12월 31일까지

박혜옥 순장(일산공동체)네 순(마리아4순)은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가 일상이다. 지난해 '90일의 기적 성경일독'도 순원 모두 완독했다. 1년에 1독(讀) 정도가 아니라 5독, 8독을 한 순원도 있다. 말 그대로 말씀 읽는 순이다.

박혜옥 순장은 “공동체가 함께하는 성경을 읽은 것 자체가 원동력”이라며 “더욱 집중할 수 있고, 서로의 격려 덕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읽어서 좋다”고 말했다.

예상옥 총무(이수공동체, 파워웨이브 교사)는 파워웨이브 교사들과 함께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를 하고 있다.

예상옥 총무는 “다음세대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먼저 말씀 안에서 바로 서야 한다고 느껴서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를 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는 성경



박혜옥 순장(일산공동체)이 자녀와 함께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를 하고 있다.

읽기표를 따라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는 과정이다. 12월 31일까지 이어진다. 교회에서 매일 오전 공동체 총무에게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 링크를 보내주면, 총무들이 순장에게 링크를 전달하면 된다. 순장은

순 순원들에게 링크를 공유하고 성경읽기를 독려하면 된다. 성경읽기표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집에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어요”

NGO 더멋진세상 라투갈러 마을 식수사업

매일 물을 길으러 수 km를 걷던 스리랑카 라투갈러 마을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다.

NGO 더멋진세상이 마을 주민들과 함께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식수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이다. 스리랑카 라투갈러 마을 주민들은 식수관이 노후되어 매일 물을 뜨러 다녔다. NGO 더멋진세상은 수

원지부터 라투갈러 마을에 이르는 노후 식수관을 교체하고, 각 가정으로 연결하는 식수관을 설치했다.

이성희 선교사는 “라투갈러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식수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인사했고, 밀턴 목사는 “마을에 큰 도움을 주신 NGO 더멋진세상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기독교 OTT ‘풍당’ 〈내 삶에 신학〉 론칭

장신대, 소망교회와 공동제작, 성도를 위한 신학 강의

CGNTV 기독교 OTT ‘풍당’이 장로회신학대학교와 소망교회(담임 목사 김경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와 함께 성도들을 위한 신학 강의 〈내 삶에 신학〉을 론칭했다.

〈내 삶에 신학〉에서는 신학자 및 목회자 8명이 신학적 통찰력을 배

경으로 삶 속에서 바르게 알고 실천할 수 있는 교파별 성전의 차이, 개신교의 다양한 교파와 성공회, 바른 신앙과 이단 대처, 일과 소명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총 23편을 시청할 수 있다.

/ 김영선 기자

온누리 상담센터 수련상담사 모집

온누리교회 상담센터(서빙고, 양재)에서 수련상담사를 모집한다. 상담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온누리교회 등록성도가 대상이다. 2월 6일까지 지원서(상담센터 양식), 소속 공동체 목회자 추천서, 석사졸업증명서, 임상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만)을 이메일(서빙고 lsy1227ysl@hotmail.com, 양재 onnuriyjc@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서빙고 02-793-2998, 양재 02-570-7536

두란노아버지학교 참가자 모집

두란노아버지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2월 12일부터 3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2월 5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0만 원.

두란노아버지학교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남성들의 회복을 돕고, 아버지들을 바로 세우는 프로그램이다.

문의: 010-3135-2865

대학청년 세례명단

〈허브〉 임혜린 010216
김승희 990715
신지수 960817
오가는 030726
입교 전우현 020825

‘21장로회’ 창립 총회

2021년 장립된 장로 47명 참석

지난 1월 21일 ‘21(이일) 장로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21장로회는 2021년 12월 4일 장로 장립을 받은 장로 47명의 모임이다. 안전한 모임을 위하여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하고, 자가진단키트로 한 번 더 체크했다.

21장로회 창립 총회는 노치형 목사 말씀, 임희창 장로(장로사관학교) 축사, 회칙 제정, 임원단 추인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주님의 몸 된 교회에 장로로 부름을 받은

장로들이 삶과 생각, 비전을 나누고 온누리교회의 성장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영상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21장로회 비전을 찾고 다짐하는 시간도 가졌다. 21장로회는 교회와 성도를 겸손하게 섬기고,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시대를 기도로 준비하고, 예수님의 본을 보이며 교회에 덕을 세우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비전으로 선포했다.

/ 정현주 기자

〈생명의 삶〉대학청년판 신청

1월 31일까지 20% 할인 혜택

두란노서원에서 〈생명의 삶〉대학청년판 정기구독을 신청 받는다. 1월 22일(토)부터 31일(화)까지 1년 정기구독을 신청한 청년들에게 정기구독 가격(48,000원)의 20%를 할인해준다. 정기구독 발송이 시작된 다음에는 취소가 어렵다.

두란노서원 〈생명의 삶〉대학청년판 정기구독 신청은 대학청년부 각 공동체 온라인 주보에 기재된 신청 링크 또는 두란노 정기구독센터 홈페이지(www.duranno.com/subscriber)에서 하면 된다.

일대일양육자반 수강생 모집

일대일양육자반 ‘서빙고 화요 오후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2월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으로 전환되면 주일 오전 8시 10분 대면강의를 실시한다(별도 공지). 참

가 신청은 2월 15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무료. ‘예수그리스도’,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성경’, ‘기도’, ‘교제’, ‘전도’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9265-1532

농어촌선교팀 농산물 판매

판매 이익금 전액 농어촌교회 후원

서빙고 농어촌선교팀이 1월 29일(토)과 30일(주일) 서빙고온누리교회 선교관 카페에 설치된 데스크에서 농산물을 판매한다. 떡국 떡, 쌀, 서리태콩, 재래 김 등을 판매한다. 농산물 판매 이익금은 전액 해외에서 온 근로자, 결혼가정 어린이, 노후 된 교회를 건축하는 농어촌교회를 후원할 예정이다.

손현석 집사(서빙고 농어촌선교팀)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농어촌교회와 해외에서 온 근로자, 다문화가정 및 결혼가정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다”면서 “농어촌선교팀 농산물 판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관련기사 14면).

문의: 02-3215-3434, 3436

대학청년부 홀리스타 재개

월~금 오전 6시 30분 양재 기쁨홀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되었던 새벽을 깨우는 청년들의 ‘홀리스타’가 재개된다. 1월 24일(월)부터 매주 월~금요일 오전 6시 30분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진행된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 청년이라면 별도의 예배 예약 없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대학청년부 홀리스타 실황을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2월 화요성령집회 ‘믿음의 항해’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분당

대학청년부 2월 화요성령집회가 ‘믿음의 항해’를 주제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분당에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2월 화요성령집회 ‘믿음의 항해’

에서는 1일 배행삼 목사 ‘세상 한가운데에서’ (단 1:1~16), 8일 김승수 목사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 (행 21:1~14), 15일 하정완 목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다’ (롬 1:17), 22일 김승수 목사 ‘미련한 삶으로의 초대’ (고전 1:18~25)를 주제로 설교한다.

2022년 차세대 교사 모집



/ 박성은 교사(양재 소년1부)

차세대 교사, 참 값진 자리

내가 차세대 교사로 섬기게 된 계기는 부끄럽게도 불만에서 시작됐다. 담임선생님의 공지나 보살핌이 부족하다는 교만한 생각이 들면서 불만이 생겼다. 기도 중에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나의 영적 상태인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부족한 빈자리를 직접 채우라는 마음을 주셨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든 티만 바라보는 내 모습을 회개했다.

차세대 교사로 섬기면서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 보람을 느꼈다. 내가 아이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큐티’다. 연초에 새로운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신앙 나이를 물어본다. 자신 있게 대답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다. 아이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매일 큐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추천한다. 인간에게만 주어진 생각하는 힘과 언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학년이 끝날 즈음 큐티를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하던 친구들이 한두 번 하면서 자랑을 한다. 반 친구들 모두 자극을

받고 자연스럽게 일주일에 4~5회 이상 큐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한다. 큐티하면서 받은 은혜나 생각을 나누는 아이들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낀다.

차세대 교사를 하다 보면 엄마로서는 미안한 점이 생기기도 한다.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줄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회에서 진행되는 차세대 프로그램의 취지와 내용을 더 자세히 알기 때문에 보다 깊은 신앙교육을 할 수 있다. 또 자녀들이 부모가 차세대 교사로 섬기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자녀들이 보조 교사로 섬기기도 한다. 그 자체가 신앙교육이다. 무엇보다 값지고 귀한 것은 아이들을 보면서 새로운 꿈을 꾸는 것이다.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된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이들이 이끌어갈 하나님 나라를 곁에서 함께 소망하게 된다. 차세대 교사로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저마다 빛나는 달란트를 가진 아이들이 서로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는 차세대 교사는 참으로 값진 자리다.



/ 김의경 교사(서빙고 유치2부)

가장 행복한 사람, 차세대 교사

우리 부부는 벌써 6년째 차세대 교사로 섬기고 있다. 섬김을 시작하기 전까지 1년 넘게 고민했다. 우리는 맞벌이 부부였기 때문에 그나마 아이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주일에 차세대 교사로 섬기는 것이 썩 내키지 않았다. 주일에 교회를 다녀와서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이다. 부르심을 고민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의 시간도 나의 것이고, 너의 물질도 나의 것이고, 너의 건강도 나의 것인데 너는 왜 나에게 쓰는 것을 아까워하느냐”는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날 곧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남편과 함께 차세대 교사 생활을 시작했다.

두 자녀를 데리고 차세대 교사로 섬기는 일은 쉽지 않았다. 교회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혹시 자녀들이 다른 선생님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지도 신경 쓰였다. 엄마를 다른 아이들에게 빼앗기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는지 둘째 아이가 내게만 붙어 있으려 해서 애를 먹는 적도 많다. 하지만 그 시간은 우리 부부가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

준과 생각을 내려놓는 기회였다. 부부가 함께 사역하면서 더 깊은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차세대 교사로 섬기는 동안 내가 받은 은혜가 셀 수 없다. 맞벌이로 자녀들과 보낼 시간이 없어서 늘 안타까워하던 내게 하나님이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교사로 섬긴 지 1년 만에 일을 그만두고 자녀들을 온전히 돌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 남편은 차세대 교사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더 좋은 아빠가 되었다. 자녀들은 많은 동역자의 넘치는 사랑과 격려를 받으면서 영과 육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작은 섬김에 비해 받은 은혜가 넘치게 많다.

코로나19로 2년 동안 중단되었던 교사 모집을 올해 다시 시작한다. 차세대 교사를 고민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전해드리고 싶다. 하나님은 분명 내가 아니어도 모든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다.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권한다.

■ 세례 간증



/ 홍순남 성도(동작공동체)

나의 죄를 회개한다

나는 6.25한국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기에 5남매 둘째 딸로 태어났다. 만팔인 언니는 부모님이 결혼한 지 6년 만에 낳은 자녀라는 이유로, 5살 아래 남동생은 딸 부잣집 유일한 아들이라는 이유로 사랑과 관심을 받았다. 나는 완전히 잊힌 딸로 자랐다. 새 옷은 항상 언니만 사 주었고, 언니가 입다가 다 떨어질 무렵 내가 물려 입었다. 맛있는 간식이라도 생기면 부모님은 언니와 남동생 먼저 챙겨 주셨다. 나는 알아서 빼앗아 먹다시피 했기에 어렸을 때는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팠다. 항상 너무 억울했다. 때때로가 되어 매일 혼이 나곤 했다. 겉으로는 말 없는 조용한 아이가 되었고, 속으로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 갔다.

다행히 생활 형편이 나아졌다. 나를 치열한 입시경쟁을 뚫고 중고등학교에도 진학했다. 그런데 나보다 뛰어난 친구들이 넘쳐났다. 막강한 배경의 부모를 가진 친구들이 많아 위축감을 느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했다. 결혼하고 자녀도 낳았다. 겉으로는 무난해 보였지만 나는 항상 마음이 무겁고, 침울하고,

행복감이 없었다. 결핍감, 불만, 열등감 등으로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웠다. 먼저 다가가지 못했고, 소극적인 나를 사람들이 어려워했다. ‘사람들에게 잘 해주자’고 생각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고 항상 버거웠다.

60세가 될 무렵, 먼저 하나님을 영접한 여동생의 권유로 온누리교회에 등록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성경 말씀, 설교,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님과 순원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하나님을 알고 가고 느끼기 시작했다. 원죄에 대해 생각하면서 지난날을 돌아보았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저주하며, 비교하고 질투했는지 깨달았다.

나의 죄를 회개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더 많았음에도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했고, 감사할 줄 몰랐다. 나눌 줄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원망과 갈망만 가득했다. 나의 이기심과 탐심, 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나의 고백과 회개를 받아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 대만 온누리선교전략 세미나



/ 손영청(孫榮菁) 자매

선교지향적인 교회 공동체의 꿈

중고등부 선생님이던 시절 학생들과 청소년을 주제로 한 설교를 들으러 간 적이 있다. 설교가 끝나고 학생들에게 목사님의 설교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이 깊었는지를 물어보았다. 학생들은 농담이 인상 깊고 재미있었다고 답했다. 설교자가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싶어도 듣는 사람들이 그 설교에서 어떤 것을 듣느냐가 중요하다.

나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설교는 하용조 목사님의 “어쩌면 목사가 부흥의 문을 막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과 김홍주 목사님의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대상은 바로 목사님”이라는 내용이다. 두 내용이 역설적으로 현시대 문제를 잘 표현하고 있다.

모든 목회자는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을 잘 목양하기 위해 열심히 사역한다. 하지만 대부분 목회자가 3개월 이상 타문화 단기선교나 장기선교 경험이 없다. 때문에 ‘선교’에 있어서 현장과 교회의 생각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번 세미나에서 온누리교회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완수하기 위해 분명한 비전을 바탕으로 어떻게 타문화권에 교회를 개척하

고, 선교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했다. 목회자들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선교에 관심을 두고 참여하도록 이끌 것을 기대한다. 모든 교회가 온누리교회와 똑같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각자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

온누리교회의 QT, 일대일제자양육은 최근 대만에서 유행 중인 한국의 ‘두 날개 운동’과 유사하다. 왜 두 교육시스템이 선교에 대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을까? 그 이유는 대만 교회가 교육시스템을 받아들일 때 목적과 핵심을 생각하지 않고 시스템을 모방했기 때문이다. 따라 하는 것으로는 진정한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온누리교회의 교회론, 목회 철학, 핵심가치는 선교지향적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다. 온누리교회가 추진하는 모든 사역은 선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만 교회가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배우는 것이 좋지만, 우리는 반드시 멈춰서 그 교육시스템이 담고 있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충분히 생각하고 교회에 적용해야 한다.

장로칼럼

마지막 날까지 순종하는 신앙인



조형진 장로
(장로중보기도회)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수록 말씀을 듣는 귀가 커지고, 성경 지식만 늘어나는 것을 느낀다. 반면 신앙과 삶의 괴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조금씩 가까워져야 하는데 더 멀어지는 것 같아 말씀이 내 삶에 조금이라도 녹아들기를 기도하고 있다. 믿는 성도가 함께해도 부족한데 코로나19로 인해 세상과 교회가 조금 달라진 것 같다. 아무래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세상이 혼탁해질수록 서로에게 실망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 좁은 길보다 넓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나도 소금이 되어서 더 이상 썩어 없어지지 않게 세상에 녹고 싶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미 부패한 것도 새롭게 된다는 믿음이 있다.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싶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도록 순종하는 은혜가 있었다. 나에게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는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반전의 계기였다. 하루의 시작이 새벽 4시였고, 밤 9시면 잠자리에 들었다. 덕분에 분주하게 살면서 잃었던 생체리듬을 회복할 수 있었다. 하나님과 수직관계, 사람들과 수평관계가 원활하면 복이 있는 윤택한 삶이 된다. 세상 복을 따랐던 잘못을 회개한다.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동안 팔복의 은혜가 내 심령과 행실에 임해서 이 땅

을 사는 천국 백성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매제로 살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크고 넓은 사랑을 깨닫고 본받아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거룩과 화목을 이뤄나가고 싶다.

하늘 아래 두 주인이 존재할 수 없다. 탐심은 곧 우상이다. 재물로 인색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인색한 것이 가장 어리석은 삶이다. ‘물질에 매이지 말자’고 다짐한다. 주님께 헌신하는 삶은 삶의 참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된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고, 참 예배자의 삶이다. 주님 것은 주님께 드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축복의 삶을 살고 싶다. 우리의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어떤 경우에도 남의 동기를 죄악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내 주장이 옳다면서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위선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된다. 내 눈의 들보를 빼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한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님께 속한 선택’과 ‘사단에게 속한 선택’ 단 두 가지다.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지나 구원을 받아야 한다. 많은 사람이 선택해서 좋아 보이는 넓은 길은 멸망의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그래야만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무에 붙어, 물가에 심겨 있을 때 열매 맺는 가지가 된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성도가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고 싶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종으로 다져진 바위에 세운 집 같은 삶을 살고 싶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를 마치면서 그간 받은 은혜를 돌아본다. 산상수훈의 은혜로 녹아 없어지는 소금과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한다.

권사칼럼

‘하시니라’의 은혜



박인숙 권사
(신용산공동체)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라.” 전에 어떤 글에서 읽었던 이 문장이 문득 생각났다.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내 나이만큼 75번을 읽으려면 아직 갈 길이 먼 듯하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2021년 벽두에 성경을 5회 통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연말에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나름대로 성취감을 느끼며 스스로 자랑스러워했다. 그런데 “네 목표가 통독의 횟수인가, 나와의 만남인가?”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것 같았다. 나는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 1:1-2).”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다. 계시의 서막을 여는 이 말씀에서 ‘하시니라’는 단어가 푹 튀어나와 내게 다가왔다. 그 뒤를 이어서 ‘하시니’, ‘하시고’라는 말이 1장에서 17번이나 보였다. 그 말씀들 뒤로 ‘그대로 되니라’가 따라나왔다. 나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말씀에 흥분되었고, 그다음 내용이 궁금해서 성경을 놓을 수가 없었다.

얼마 전, 5살 손자가 제 엄마와 차를 타고 가다가 창밖의 달님을 보고 부른 노래를 영상으로 보내왔다. 영상에서 손자는 “달님은 너무 좋아. 그래서 있어야 해. 그런데 왜 달님은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지? 왜냐면 달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움직여요. 그런 달님을 싫어할 수가 없어”라는 가사를 흥얼거

렸다. 즉흥적으로 부른 노래였는데 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인다고 표현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손자의 노래를 들으면서 나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는 시편 8편의 찬양이 떠올랐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막 1:15).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이 따랐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아픈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8).

이 말씀은 크리스천이라면 대부분 암송할 만큼 친숙하다. 나는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며 그동안 내가 ‘하시니라’는 동사를 간과했음을 깨달았다. 무릎을 쳤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기에 된다는 마음이 몰려왔다. 캄캄한 방에 환한 전깃불이 켜진 것 같았다. 전도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하시는 것이다. 나는 입을 벌려 복음을 선포만 하면 된다고 믿으니 전도가 아주 쉽게 느껴졌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 22:20).

성경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고 ‘하셨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멘”하고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고, 인간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소통을 보여준다. 살아있는 말씀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면 성경 안에 머무는 시간이 저절로 늘어간다. 성경 통독 횟수의 의미가 없어진다.

신앙에세이



박성천 목사
(관악금천공동체, 온누리호스피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 중에 ‘때문에’와 ‘덕분에’가 있다. 두 단어가 비슷해 보이지만 너무 다른 마음의 태도를 보여준다. ‘때문에’라는 말은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상황에 민감하다. 그들은 어떤 일을 만나면 ‘상황 때문에’라고 말한다. ‘건강 때문에’, ‘시간 때문에’, ‘나이 때문에’라는 핑계를 내세우며 회피하고 포기한다. ‘때문에’로 온갖 핑계 삼고, 안 되는 이유를 자신이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에서 찾는다. 공부도 많이 했고, 상당히 괜찮은 직장을 다니는 지인이 있다. 그분을 만나서 대화하고 나면 이상하게 피곤함을 느낀다.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그분의 언어 습관이

원인이었다. 그분의 말에서는 수많은 ‘때문에’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남 탓, 상황 탓, 정치 탓, 코로나19 바이러스 탓, 건강 탓... 온갖 탓을 하며 정말 피곤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다.

‘덕분에’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권사님이 계시다. 그 권사님에게 암이 발병했다. 암에 걸린 덕분에 그 권사님은 호스피스사역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암 덕분에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얻었다고 항상 감사하셨다. 그 권사님은 전문호스피스 훈련을 받고, 아픈 이들의 병실을 들어가 지극정성으로 자원봉사 하셨다. 그 권사님은 늘 “나이가 많은 덕분에 어느 병실에도 들어갈 수 있어서 좋아요”라고 고백하셨다. 그 권사님의 입술에는 항상 “예수님 덕분에”라는 말이 있었다.

비슷한 상황과 환경을 살지만 ‘때문에’와 ‘덕분에’의 기로(岐路)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생각해 보면 ‘덕

때문에 VS 덕분에

분에’는 은혜의 단어이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덕분에’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했으면 좋겠다.

“예수님 덕분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선교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사랑합니다!”

‘덕분에 인생’을 사는 사람은 감사를 고백하고, 은혜를 누리며, 복음 안에서 행복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믿는 사람의 인생은 ‘덕분에 인생’이다.

우리 가정은 두 딸 외에도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주신 영적 딸들이 있다.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재정적으로 힘든 학생들이다. 매월 그 학생들에게 위생용품과 학용품, 과자 등과 더불어 손편지를 써서 보내준다. 어느새 11명으로 늘었다. 귀한 아이들을 우리는 ‘우아한 걸’이라고 부른다. 믿음 안에서 우아하게 자라기를 소

망하는 마음에서다. 우아한 걸 학생 중에 이번 에 수능을 본 친구들이 있다. 그중 한 명은 부모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 찬양사역자의 비전을 품었고,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에 합격했다. 또 한 명은 오페라 정서장애와 중독이 있고, 아버지는 일용직으로 살아가고 있다. 팍팍한 상황이지만 CCM 작곡가의 꿈을 꾸고 음악과에 합격했다. 두 학생 모두 얼마든지 ‘때문에’라고 핑계 삼고 포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 안에서 비전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들과 대화하면서 “매월 받는 선물도 좋지만 사실 그 안에 담겨있는 손편지가 가장 좋았다”는 말을 들었다. 누군가 자신을 기억해주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했다고 고백했다. 이제 자신도 서포터즈가 되어서 더 어려운 학생들을 돕겠다고 했다. 진정한 덕분에 인생이 무엇인지 아는 멋진 우아한 걸이라고 생각했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거꾸로 보는 인생의 지혜

음이 우리 마음을 교정해 줍니다. 초상집의 슬픔에 참여하면 당장의 즐거움이 아니라 내일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구부리신 것을 누가 펴 수 있겠는가?”(13절).

곧게, 평탄하게,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사는 인생도 있겠지만, 때로 인생이 굴곡집니다. 구부러집니다. 그로 인해 인생에 슬픔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그 슬픔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얻어야 합니까? 많은 분이 건강에 위기가 옵니다. 때로는 암 선고를 받고,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라는 진단도 받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제10장로 교회 목회자였던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가 “암으로 살 날이 3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고 성도들에게 작별 설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굴곡을 놓으신다면 당신은 그것을 바꾸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구부리신 것을 바꾸려 한다면 예전만큼 선하지 않을 것이며, 상황이 더 악화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부리신 것을 누가 펴 수 있겠습니까? 굽게 하십시오 주시는 슬픔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지혜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부리신 것을 다시 펴지 마십시오”

한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지선 자매님은 2000년 7월 중 교통사고를 당해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의 음주운전 때문이었습니다. 언젠가 그 자매님이 온누리교회에서 간증한 게 기억납니다. “하나님이 예전의 얼굴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구부리신 것을 다시 펴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상태에 감사하며 기쁘게 살겠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기에 그 고통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매님이 만약 “하나님,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소원했다면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과거로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구부리신 것을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여겼기에 그 고통을 이기고 승리한 것입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크리스천 작가도 1991년 가을밤에 아내와 세 자녀와 어머니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에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한순간에 아내와 네 살배기 딸과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엄청난 충격과 슬픔 속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 과정을 모두 열거하며 쓴 책이 ‘위장된 은혜(A Grace Disguised)’입니다. 한국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심하게 구부린 것을 허락하셨다면 그 슬픔을 통해서 잔칫집에서 얻을 수 없는 지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지혜를 얻게 하신 거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심하게 구부리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가장 의로우신 분이 가장 불의한 자들에 의하여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건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재판이 6번이나 이뤄졌습니다. 모든 증거가 조작되었고, 모든 증인이 매수되었습니다. 모든 판결이 거짓으로 이루어져서 가장 의로우신 분이 가장 불의한 재판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구부러진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구부리신 것입니다. 불의한 죽음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구부러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보여주셨고, 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구부러진 십자가의 슬픔을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슬픔을 깨달을 때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참된 기쁨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슬픔을 외면하고, 세상의 웃음으로 인생을 채우는 사람은 어리석은 웃음에 취해 살게 됩니다. 고난주간 찬

송은 고난주간에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가져오는 슬픔을 직면해야 세상의 모든 슬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부리시는 것을 우리가 펴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구부러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인생을 거꾸로 보는 렌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 이유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묵상하며 우울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가장 지혜롭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교사이자 전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친구로 초대합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작보다 마지막이 낫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을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초상집에 먼저 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더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더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거꾸로 보는 것입니다. 인생을 거꾸로 보는 렌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가 인생을 거꾸로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뒤집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종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사건, 세상을 뒤집는 사건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역설은 인생을 거꾸로 보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간 상실마저 축복이 되고, 엄청난 재난으로 인한 슬픔마저 감사의 제목으로 바꿉니다. 불행처럼 보이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로 바꿉니다. 십자가를 통해 인생을 거꾸로 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일을

십자가의 지혜로 바라보며,

거꾸로 보는 인생의 지혜를 통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교회의 사회적 책임



이영근 장로
(서빙고 농어촌
선교팀)

날씨가 춥다. 발을 동동 구르게 하고 손을 비비게 만드는 겨울은 추운 날씨만큼이나 주변도 차갑고 쌀쌀하게 하고, 몸과 마음을 움크리게 한다. 절로 외롭고 스산해지는 계절이다. 그나마 도시 사람들은 괜찮다. 수많은 건물들 사이를 왕래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골은 다르다.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 내비게이션 고장으로 목적지를 찾지 못해 헤매고 있을 때 도시에서는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 있지만, 시골에서는 그럴 수 없다. 오가는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로 고향마을이 사라지고 있다. 인구가 줄고, 마을이 점차 없어지면서 마을의 등대 역할을 하던 교회 십자가 등불도 사라지고 있다. 그래도 끝까지 십자가 불을 밝히며 선교하는

교회들이 있다. 그곳에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해외에서 온 근로자들, 다문화 가정, 결혼가정 어린이도 추가됐다. 최근 농촌에서는 젊은이들이 빠져나간 일손을 해외에서 온 근로자들이 채우고 있다. 시골로 시집오려는 여자가 없어서 외국에서 신부를 맞아 자녀를 낳고 사는 다문화가정, 조부모 손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사정이 열악한 농어촌교회가 섬기고 있다.

농어촌선교팀에서 농어촌교회를 돕고자 지난 1월 22일부터 30일까지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떡국 떡과 서리대 콩, 재래김, 쌀 등을 주문 및 현장 판매한다. 이익금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농어촌교회들을 후원할 예정이다.

충남 금산 창평교회 목사님은 결혼가정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비닐하우스에서 추위에 떨며 조부모와 함께 사는 아이들을 부모처럼 돌본다. 지난해 창평교회에서 앤젤트리 사연을 접수했는데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이 ‘쌀’이었다. 손현석 집사가 사연을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학용품과 장난감으로 변경했다.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목사님께

확인해봤더니 아이들이 선물을 받고 너무 즐거워했다고 한다. 쌀은 이웃사랑팀을 통해서 전달했다. 농산물 판매 이익금으로 결혼가정 아이들과 창평교회를 도울 생각을 하니 설렌다.

경남 산청 모례교회 주변에는 비닐하우스 딸기농장과 축산 농가에서 노동하는 해외에서 온 근로자가 많다. 지리적으로 대한민국 남쪽이지만, 지리산 자락에 있어서인지 매우 춥다. 해외에서 온 근로자들은 동남아시아 출신이 많다. 더운 곳에서 추운 곳으로 왔으니 적응이 될 리 없다. 살 끝까지 파고드는 지리산 추위를 견뎌야 하는 그들을 위해 겨울 내복을 전달했다. 설에는 떡국을 대접할 예정이다. 산청 모례교회에서는 한글 교육과 용접 기술을 가르칠 준비를 하고 있다. 농어촌선교팀에서는 농산물 판매 이익금으로 해외에서 온 근로자들을 도울 생각이 다.

전북 부안 청림교회는 상수도 상류 지역에 있어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행정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었다. 복잡한 행정절차와 문제를 해결하고 드디어 교회 건축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높은 인건비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건축 자재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건축이 중단되었다. 여러 사람이 안타까워했다. 청림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새 교회를 기대했던 마을 주민들, 건축에 필요한 여러 행정적 편의를 제공했던 행정관서 역시 착잡해 했다. 설 농산물 판매 이익금으로 청림교회 건축비를 보탬 예정이다. 서빙고 농어촌선교팀에서는 재능기부 봉사자들과 함께 청림교회 건축 공사를 함께 하기로 했다.

성도들이 현장 접수, 공동체 단체채팅방과 SNS 등을 통해 농산물 주문을 많이 해주셨다. 아직 주문을 못 했다면 기회가 남아있다. 1월 29일과 30일에도 농산물을 판매한다. 농산물 판매 이익금은 전액 농어촌교회를 위해 쓰인다. 해외에서 온 근로자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힘을 얻도록, 건축이 중단된 교회를 도와주시기를 부탁한다. 성도들의 사랑과 관심이 농어촌을 살린다. 농어촌선교팀 봉사자도 모집한다. 물질, 기도, 재능기부로 함께할 수 있다.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문의: 02-3215-3434, 3436

사랑과 관심이 농어촌을 살린다!

퐁당과 함께하는 믿음의 영웅 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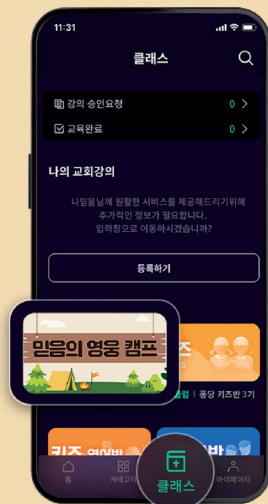
퐁당 클래스 & 인스타그램 이벤트

기 간 1월 4일(화) ~ 2월 2일(수) **발 표** 2월 10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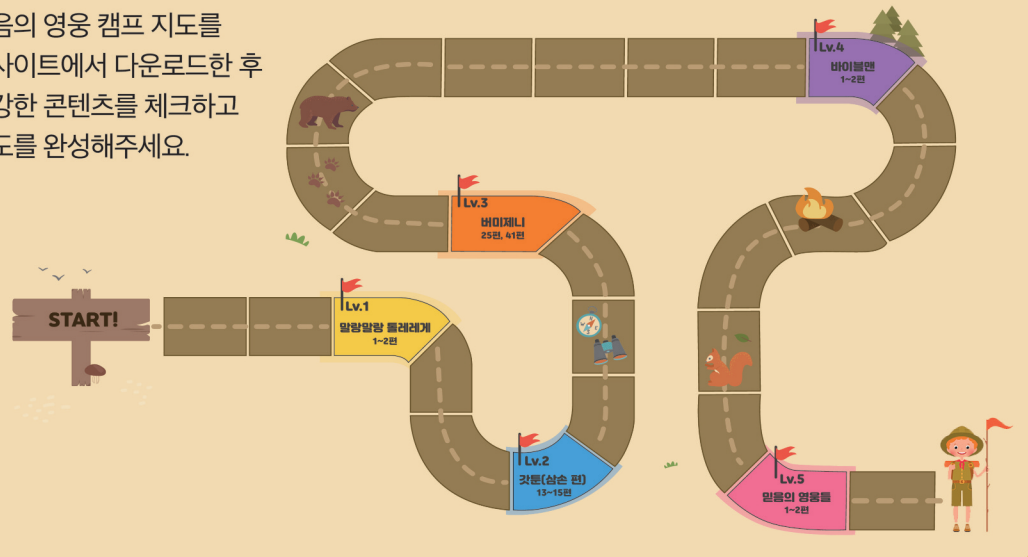
참여방법 *자세한 내용은 CGNTV 웹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 1 '퐁당' 앱에서
믿음의 영웅 캠프 클래스를
수강한 후 진도를
100%를 달성해주세요.

*회원가입, 본인인증 필수



- 2 믿음의 영웅 캠프 지도를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후
수강한 콘텐츠를 체크하고
지도를 완성해주세요.



- 3 인스타그램에 필수 해시태그와 완성된 지도
사진을 업로드 한 후 피드를 캡처해주세요.
#기독OTT퐁당 #믿음의영웅캠프

- 4 퐁당 인스타그램 (@fondant_official)을
팔로우하고, DM으로 캡처 이미지와 성함을
보내주시면 참여 완료!

상 품 *캠프 참여자 중 12명에게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려요!



1명 성경동화 ABC세트 & 세이펜



2명 갤럭시탭A 8.0 & S펜 Wi-Fi



3명 부모 자녀 마음대화 질문 카드



3명 어린이 청력보호 헤드셋&마이크



3명 블레스싱 메탈펜